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상황에 관한 연구*

최 선 화**, 공 미 혜***, 한 동 희****

- I. 서론
- II.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I. 서론

현대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노인문제는 복잡 다양하며 특히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노인에게 대한 지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했을 때 우리나라 여성노인의 성비는 60.5%를 넘고 있는데 근래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치매노인이나 노인부양문제 및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¹⁾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

* 이 논문은 1996년도 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신라대 생활과학부 교수

**** 노인생활과학연구소 소장

1) 권중돈, 한국 치매가족연구-부양부담 사정도구 및 결정모형 개발-, 홍익제, 1995.

고 있는 사항은 이들 노인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이다. 이는 곧 여성노인문제가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문제를 대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인구 수 중 여성노인의 증가는 건강이나 부양과 관련된 가족갈등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에 의해 이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사회의 고정관념 탓으로 이들 여성노인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노년기를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과정에 신체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 자립이 어려울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 대처방안 없이 자칫 가정에서 방치되어온 여성노인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경험해 왔던 유교주의의 보수적 가치관에 얽매어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원과 계속되는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의존적인 노인과 이들을 제대로 부양할 수 없는 가족원의 갈등이 전개될 때 여러모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노인은 학대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정책은 매우 한정된 상태이고 기본적으로 노인문제를 가족원에 전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통적인 가족윤리 때문에 노인학대는 가정내에 은폐되기 쉬운 실정이다²⁾.

미국의 경우 한해 2백만명이 넘는 노인들이 학대를 받고 있으며³⁾,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언론의 보도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성노인들이 학대에 희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⁴⁾. 따라서 본 연구는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사회문화적, 가족적, 사회정책적 상황을 밝힘으로써 근본적인 한국 여성노인문제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여성노인이 처해온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하여 가부장제에서 여성노인이 학대에 더 희생되고 있는 근원

김윤정, 치매노인의 장애기간과 부양자의 대처 자원이 부양자의 부담 및 부양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3, pp.1~10.

양옥남, 노인과 부양자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4.

이윤정,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분담정도와 부양에 따른 부담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전길량, 노모와 성인 딸간의 상호작용과 부양 기대감-부양기대 요인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조경자, 한동희, 조은희, 노부모와 기혼 자녀의 동거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6호, 1996, pp.261~273

- 2)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논문집 제22집, 1993, pp.273~286.
- 3) Tetara, Elder Abuse in the united states : An Issue paper, Prepared for The Adminidtration on Aging(AoA)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HHS), The National Aging Resource Center on Elder Abuse (NARCEA), 1990.
- 4) 전길량, 송현애, 노인 홀대에 관한 연구: 학대와 방임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가족 상담 교육단체 협의회 학술대회 자료, 1997, pp.33~96. 한동희, 노인 학대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6, pp.7~8

적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가족적 상황을 분석하여 가족유대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정책과 관련된 여성노인의 상황을 밝혀내어 이들에게 요구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노인학대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익숙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규정된 상태도 아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인학대의 개념은 아내학대나 자녀학대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연구자들이 제시한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 연방 정부가 정한 노인학대에 관한 정의는 미국 고령자법(Older Americans Act)에 명시되어 있는데 고령자법에는 육체적 학대, 방임, 유기 등 3가지 유형이 내포되며, 각 주에 따라 포함되는 유형은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동희⁵⁾는 노인학대를 "의존적인 노인에게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그리고 친척들 사이에서 자행되는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혹은 심리적 상해와 인격이 무시되는 행위를 말하며 또한 자산에 대한 오용 등으로 노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Tatara⁶⁾는 가정내 노인학대를 노인과 특별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배우자, 형제, 친구, 친척, 수발을 제공하는 자 등에 의하여 노인자신의 집이나 수발을 제공하는 집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혹독한 취급을 당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방임, 금전적/물질적인 착취 등으로 나누었고, 시설내 학대란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은 유형의 학대가 시설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학대를 행하는 사람은 유급의 수발제공자, 직원 등으로 보고 있다. 자기방임은 고령자 자신이 스스로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 같은 태만한 또는 자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Johnson⁷⁾은 노인학대의 정의를 노인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며 고통을 가하는 것, 이유 없는 감금, 위협, 잔인한 처벌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적 상해나 고통, 정신적 걱정 혹은 신체적 상해, 정신적 걱정이나 정신적 질병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서비스

5) 한동희,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6, pp.6~7

6) 多久良紀夫, 二官可鶴香(譯), 老人虐待, 筒井書房, 1994, pp.12~15.

7) Johnson, Critical issues in the definition elder mistreatment in K.A. Pillemer and wolf (eds) Elder Abuse: Confliction of the Family, Dover, MA:Auburn House, 1986.

스)을 수발자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정의들은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잠재적인 학대행위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 역시 노인학대를 노인의 기본적 인권이 무시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그리고 친척들 사이에서 자행되는 노인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정서·심리적 상해와 인격무시행위, 방임, 그리고 자산에 대한 오용 등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노인은 본 연구의 특성상 여성노인의 경우로만 한정한다.

노인학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나뉘게 된다. 우선 신체적 학대는 폭력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또는 정신적 타격을 입히는 것 외에도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협행위를 포함한다. 언어적 학대는 노인에게 모욕을 주거나 언어로 위협하는 등 심리적 부담을 주는 모든 언어적 표현을 의미한다. 방임은 수동적 방임과 능동적 방임으로 나누어지는데 수동적 방임은 부양자의 무능력에 의해 노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물품이나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 것이고 능동적 방임은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적 접촉이나 의식주 물품, 의약품, 기타 재화와 용역이 의도적으로 박탈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심리적 학대는 계획적으로 노인의 인간성을 부정하고 스트레스를 주어 자살이나 가출을 유도하는 행위로 주로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행위와 함께 나타난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뜻에 관계없이 노인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훔치는 행위, 노인의 생활권과 생활비 등을 박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틀

비록 탐색적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노인학대를 설명하는 이론은 사회학습이론,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교환이론, 역할이론 등이 있다⁸⁾.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학대받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 간 역동적인 상황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기는 하지만 노인학대의 상황을 사회구조적

8) Bahr, Stephen, Family Interaction, New York: Macmillan, 1989, Staeinmets, S. K., Duty Bond Elder Abuse and Care, CA; Sage, 1988.

인 면에서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경우는 사회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상황이나 사회정책적 상황을 배제하고는 제대로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삶을 총체적이고 근원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크게 사회문화적 요인, 가족상황적 요인, 사회정책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사회문화적 상황 - 빈곤, 성차별주의나 남아선호사상과 같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수용정도 등
- 2)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가족적 상황 - 가족구성원 중 가해자 유형, 가족구성원 간 힘의 강약관계, 학대상황을 유발하는 가족관계, 즉, 피해자 약자형과 가해자 이상 상황형 등
- 3)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사회정책적 상황 - 학대받는 여성노인이 처한 고립, 사회서비스 및 정책의 결여 등

위의 사항을 분석틀로 하여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주거형태, 건강상태 및 의존도의 수준, 경제상황, 과거 자녀나 배우자와 관계의 질, 연속되는 가족문제(힘의 견제, 부양문제, 재산문제, 심리적 갈등 등), 개인적인 삶과 생활능력, 학대자 및 학대유형, 학대요인 등을 면담내용에 포함하였다. 학대유형과 학대요인을 분류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자들의 작위적인 판단에 의존하였다. 물론 여러 형태의 학대유형과 학대요인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노인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된 학대유형을 도출하였다.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65세 이상의 여성노인이다. 수집된 자료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원들에게 버림을 받고 버려진 노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러한 노인을 수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인 포항의 아가페 사랑의 집을 선정하

였다. 이곳을 직접 방문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면접에 응해주는 여성노인 11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두번째, 부산지역 복지관을 지역별로 나누어 대표적인 기관을 선정하고 이곳에 근무하는 재가복지 담당 사회복지사로부터 학대받은 여성노인사례를 소개받았다. 그러나 선정대상자 중에서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등 면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16사례를 연구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세번째, 손자녀와 함께 기거하고 있는 청소년 가정의 가족력에 포함된 노인은 부산시내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의 협조로 명단과 주소를 입수하였으며 이들 중 전화연락을 통해 면담을 승낙한 9명의 여성노인을 선정하였다. 네번째, 가족과 동거하면서 학대받는 노인은 연구의 특성상 찾아내기가 어려워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여 14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들 노인들은 비밀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도 자식이 알게될까봐 불안하게 생각하고 녹음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아적기를 하여 노인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는 1997년 6월 1일 부터 8월 31일 까지 수집되었으며 심층면접시에는 기록과 녹음을 병행하여 진술된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진술된 내용 중에서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경우나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 노인을 잘 아는 이웃이나 상담원, 사회복지사 등의 진술을 통해 재평가하였다.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대개 3~4시간 정도였다.

IV. 연구결과

1.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일반적인 상황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연령, 동거상황, 건강상태, 생활수준, 학대자와 학대유형, 학대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의 결과는 <표 1>, <표 2>, <표 3>, <표 4>와 같다.

연령은 75~79세의 여성노인이 32%로 가장 높았고 동거형태는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32%로 높았다 (<표 1>).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못한 노인이 60%로 높게 나타났고 생활수준도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80%로 나타났다 (<표 2>).

<표1> 연령 및 동거상황

(N = 50)

연령	구분	명(%)
	65~69	13(26)
	70~74	9(18)
	75~79	16(32)
	80세 이상	12(24)
동거상황	아들내외	7(14)
	딸	4(8)
	혼자	16(32)
	시설노인	11(22)
	소년·소녀 가정과 동거	9(18)
	배우자	2(4)
	기타 (여동생과의 동거)	1(2)

<표2> 건강상태 및 생활수준

(N = 50)

	상(%)	중(%)	하(%)
건강상태	12(24)	8(16)	30(60)
생활수준	2(4)	8(16)	40(80)

학대자는 아들, 며느리 순이었고, 학대유형은 방임이 5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정서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표 3>). 이러한 결과는 이해영⁹⁾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된다. 여성노인의 학대요인으로는 가족관계의 불화, 무능력한 아들, 며느리와의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9) 이해영, 새로운 복지문제로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고찰, 노인복지정책연구 제3호, 1996, pp.229~326

<표3> 학대자와 학대유형

학대자	며느리	아들	배우자	딸·사위	기타 (외손자, 삼촌)
	19(30.6%)	22(35.5%)	4(6.5%)	10(16.1%)	7(11.3%)
학대유형	정서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15(16.9%)	48(53.9%)	9(10.1%)	10(11.2%)	7(7.9%)

<표4> 학대를 일으키는 중요요인

학 대 요 인	가족관계 불화	무능력한 아들	할머니의 인격적 특성	재산문제	종교적 갈등
	17(35.4%)	12(25%)	3(6.3%)	5(10.4%)	1(2.1%)
	며느리와의 갈등	배우자 학대	배우자의 학 무능력	기타 (양모 부양 거부, 삼촌의 양육 부담)	
	8(16.7%)	1(2.1%)	1(2.1%)	2(4.2%)	

2.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사회문화적 상황

1) 빈곤의 악순환

현재 한국 여성노인은 일제시대에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냈고 결혼하여 어려운 가운데 자녀양육을 하였으며 산업화, 도시화로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 노령기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동체의 존립위기와 여러 차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빈곤과 혼란을 겪은 세대이다. 이 당시의 사회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의 공식적, 제도적 영역이 크게 축소되거나 붕괴되어 전국민의 생존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둘째, 점진적인 산업화 및 도시화, 대중교육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¹⁰⁾.

본 연구의 대상인 노인들은 일제시대에 태어나 6.25동란을 거쳐 전통적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을 경험한 세대이다. 즉 일제시대와 전쟁을 거치는 동안 국가조직은 붕괴되고 피난이나 이주 등에 의해 많은 수의 농민은 고향을 떠나 도시노동자로 전

10)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90.

락하여 고달픈 삶을 살아왔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하류층 남성은 주로 무기력하고 나약한 상태에 있을 수 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이 급속한 변화와 혼돈의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온 학대받는 여성노인들의 삶은 여러가지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우선 이들 대부분은 (#13)¹¹⁾과 같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 교육이나 변변한 사회적 활동 기회를 박탈당한 채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때로는 그다지 빈한하게 살지는 않았으나 급작스러운 부친의 사망에 의해 가족의 생계를 떠맡은 경우도 있다 (#10, #11). 이와 같이 생계유지도 어려운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자녀교육은 관심 밖의 일이었고 빈곤 때문에 일찌감치 집을 떠나야했던 자식들의 가족에 대한 무관심을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 50).

할머니는 17세에 결혼했는데 시집살이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가난해서 먹고 사는게 힘들었다고 한다. 가난해서 자녀들은 아무도 교육시키지 못했으며 할머니 본인도 시집오기 전에 학교는 못다니고 야학으로 한글을 배웠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나이 40에 돌아갔는데 배우자 사망 후 많은 고생을 했다. 채소, 라면, 떡장사를 하며 겨우 생활을 했고 끼니는 항상 죽으로 때웠다고 한다. 집이 없어 창고 생활하다 주인에게 들키면 또 다른 창고를 찾아 생활했다고 한다. (#13)

남편과는 19살에 만나 결혼하였고 특별히 하는 일없이 농사일을 거들어 하루하루를 먹고 살았다. 아들 둘이 있으나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상태에서 자식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 아들 둘 모두 무학이다.... 아들들 또한 학력이 없으므로 지방에서 공장일을 하였다. 아들이 크면서 거의 같이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고 친근감도 들지 않는다. (#50)

2) 가부장제의 피해자로 그리고 강화자로서의 여성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교조화된 유교주의에 토대를 둔 남녀유별의식과 철저한 위계의 남존여비 이데올로기는 여성에게 공적 영역에서 정체성을 박탈하는 대신 혈통과 가문을 이어갈 계승자의 어머니로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한편, 사회구조적 혼란기에 남성의 부재 속에서 여성은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집안경제를 꾸려 가면서도 절대적 사명감으로 집안의 남성을 보호하기 위해 애를 썼던 것처럼 보인다. 사실 이들 여성에게 아버지나 남편의 존재는 실제적인 역할과는 무관한 상징적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11) 이 번호는 사례일련번호이며 사례연구 중 비슷한 내용은 같이 묶어 놓았음.

여성들은 이러한 이데올로기 차원의 남성지배를 내면화하며 더욱 굳건하게 가부장적 명분을 강화하고 있다¹²⁾.

태어날 때는 여자라는 이유로 올바른 교육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상실하고 성장해서는 지난 때문에 결혼생활의 도구적 역할을 하면서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된 시집살이에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려야 했으며 남편의 무능력도 자신의 팔자로 돌리며 어머니로서 억척스럽게 삶을 터득해야만 했다. 그러나 자식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보상받기를 원했던 이들 여성노인은 개인주의와 물질만능 사조에서 기인되는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 가정이나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주위의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심지어 사회로부터 낙오된 자녀들로부터 학대나 버림을 당하면서도 그런 자녀의 생활마저 돌보아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여성노인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강한 남성노인보다도 학대받을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쉽다. 여성노인들은 질병이나 장애로 정체감을 잃고 공허함을 느끼며 학대에 어떠한 반항도 못하고 의존적인 가치관 때문에 부양자인 자식들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당하기 쉽다¹³⁾.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학대에 희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¹⁴⁾ 다른 선행연구¹⁵⁾들도 이러한 학대행위에 희생되는 노인이 주로 여성이며 후기 고령자임을 지적하고 있다.

숙명이라고 생각하며 맞이하였던 결혼생활도 이전 생활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들 여성노인들은 남편의 외도(#5, #10, #28)나 폭력으로 (#10) 괴로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혹독한 시집살이에 (#5, #14, #36) 의해 심신이 더욱 어려운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특히 유교의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남성은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부터 면제를 받기 때문에 학문을 한다는 명목으로 무위도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남성은 집안살림을 알지

12)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90.

13) 한동희, 앞글, 1996, pp.15~18

14) Rathbone-McCuban, E., Elderly Victims of Family Violence and neglect, Social Casework, 61, 1980.

Sussman, Marvin B. and Lee Burchinal, "Kin family, network: unherralded structure in current conceptualization of family functioning",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August), 1962, pp.231~240.

15) Pedrick-Cornell, C. & Gelles, R. J., Elder Abuse: The status of current knowledge, Family Relations, 31, 1982.

Rathbone-McCuban, E., Elderly Victims of Family Violence and neglect, Social Casework, 61, 1980

Steinmetz, S. K., Elder Abuse, Aging, 1981, pp.315-316. Sussman, Marvin B. and Lee Burchinal,

"Kin family, networks: unherralded structure in current conceptualization of family functioning",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August), 1962, pp.231~240.

도 못할 뿐 아니라 아예 아내에게 맡긴 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 (#5, #43). 또는 한량처럼 놀고 돌아다니며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재산을 탕진한 후 가출하기도 하여 이들 여성노인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44). 또한 남편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아무런 대책없이 무기력하게 남겨진 경우도 있었다 (#48).

그러면서도 이들 여성들은 노년기에 들어서도 자녀들로부터 보살핌을 받기는 커녕 홀로 버려지거나 오히려 가출한 자녀나 사망한 자녀의 아이들까지 맡아 기르는 상태에 이른다 (#13). 그러나 이들은 자녀들에게 제대로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도 없다고 체념하면서도 남아선호사상에 젖어 아들이나 손자에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5, #41, #45). 이는 여성의 생존과 성취가 아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고방식, 즉, 아들이 있어야만 늙어서나 사후에도 편안해질 수 있다는 개인적인 복지감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남편의 빈도로 늘 편안할 날이 없었고 한번 시집간 이상 그 집 귀신이 되라는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었다... 양반이냐며 거드름을 피우던 주씨 집안에 시집을 가 자신의 집을 무시하던 시아버지 집에서 시집살이를 이맛저말한 것이 아니다. 남편은 풍수자리 바꾸는 일을 하며 생계에 보탬이 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 내가 이집저집 논에다가 소작을 붙여 농사를 지어 생활을 했다... 아들이 없어 기가 죽는다. (나는) 날개가 없어 날 수 없는 새같은 신세이다. 손자의 교육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했지만 말도 없이 등본에서 떼어 나가버린 것이 제일 아쉽고 허탈하며 그것이 제일 한가 낫다 (#5).

딸과 함께 살다가 큰 아들이 배타다가 바다에서 사망하여 손자들을 키워주기 위해 큰아들 집에 들어 갔다. 이렇게 사는 동안 둘째 며느리가 병원에 입원하여 등바죽 사람이 없어 둘째 아들집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둘째 아들은 이미 알콜중독과 간염으로 6년전 사망했고 둘째 며느리도 생활을 비관하여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알콜중독으로 병원으로 실려갔기 때문이었다. 며느리는 병원에 옮기자 마자 얼마 안되어 사망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둘째 아들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13).

할머니가 시집가던 시기는 일제시대였는데 그때는 빨리 결혼하지 않으면 일본사람에게 잡혀간다고 하여 모두들 빨리 결혼을 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17세 되던 해 8살 더 많은 할아버지에게 영국도 모른 채 시집을 갔다. 시집은 순천시에 있었는데 참 어려운 형편이었고 할아버지는 흠시어머

니의 뺨아들이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시집살이를 심하게 하셨는데 한번은 너무 심하게 맞아 등에서 피가 흐를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게 맞고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할머니는 30리 길을 걸어서 친정에 갔는데 친정에서는 시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또 시어머니가 아이를 등쳐 업고 찾아와 할 수 없이 시댁으로 돌아 왔는데도 시집살이는 여전했다(#36).

친정에서는 모친 돌아가시고 없고 계모 밑에서 고생고생하며 컸다. 밥 먹는 것도 그렇게 눈치를 하고 제대로 안주었다. 계모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집안일을 했다. 할아버지는 살림을 몰랐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 할아버지가 바깥도 피고 한투도 쳐서 고생이 많았다. 내가 일해서 겨우 떼려 살았다. 할아버지는 젊을 때 농사일 했으나 나이 들어서도 아무 것도 안하고 말을 잘라니까 량양처럼 다녔다. 내가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낚의 밭갈이도 도와주고 딸 둘을 데리고 살았다(#44).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사회문화적 상황은 그들이 태어나 성장하였던 혼란기의 사회구조와 일치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방치되었고 결혼한 후에도 남편의 무능력이나 사망에 의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수용하여 집안의 남성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지만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자녀들을 방치할 수 밖에 없었고 늙어서는 버려지거나 오히려 자녀의 가족을 떠맡는 고충을 안고 있었다.

3. 학대받는 여성의 가족적 상황

金子善彦¹⁶⁾은 가족내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상황으로 가해자에 의한 분류, 가족구성원의 힘의 강약관계에 의한 분류,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가족관계에 의한 분류 등으로 나누어 역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 가해자 별로 본 분류

가족적 상황에 따라 노인학대를 일으키는 가해자는 자기방임, 배우자, 자녀 및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로 나눌 수 있다.

16) 金子善彦, 老人虐待, 星和書店, 1996, pp.195~220.

(1) 자기방임

자기방임은 고령자 자신이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 같은 태만한 또는 자학적인 행동을 가리킨다. 미국의 노인학대 자원센터에서 조사된 노인학대 케이스 중 1/3 이상이 자기방임 또는 자학의 경우로 나타났다¹⁷⁾. 자기방임 또는 자학은 대체로 노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결과 혹은 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경우에 잘 일어났다.

할머니는 며느리와 손자, 손녀에게서 그리고 친·인척들에게서 신체적으로 방임된 상태이고 심리적 방임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경제적인 도움이 가뭄이었지만 지금은 없다. 경제적으로 학대받는 것과 기본적인 생활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신의 딸자가 사나워 아들이 죽고 손녀가 가출했다고 자신을 책망하며 살아가고 있다(#6).

본 연구에서는 위의 사례처럼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쇠약한 신체나 정신기능, 사회적·경제적 요인이 더하여 스스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자기방임에 빠지게 되는 사례가 많았다 (#9, #16, #17, #18, #35, #36, #43).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는 빈곤한 생활에 놓이기 쉽고 결과적으로 자기 방임이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2) 배우자

노인학대 유형에서 남자와 여자노인의 경우가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회구조적 조건과 노인학대 예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늙어서까지 배우자에게 학대받더라도 권위나 재산을 독점하고 있는 남편에게 어떤 치욕스런 경우라도 참고 순종해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이므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

결혼 이후부터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은 노후에 아내 구타를 일삼았다. 또한 무능력한 남편은 결혼 전 알고 지내던 여자와 동거를 하여 3남1녀를 낳고 동거녀가 가출하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양육을 강요했으며 생활은 지탱되지 않고 빚을 지게 되었고 어려운 생활을 견디다 못해 자신도 가출을 하여 자살까지 기도하며 평생 어려운 삶을 살아 왔다(#10).

17) 多久良紀夫, 老人虐待, 筒井書店, 1986, pp.195~220.

위의 사례처럼 많은 여성들은 젊어서 남편의 외도나 평탄하지 않은 가정형편 속에서 무능력한 배우자의 구타나 외도를 참아가며 어렵게 생활하다 노년기가 되어 자신의 삶조차 지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5, #8, #9, #10, #28).

(3) 부양자

서구와는 다르게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가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학대의 가해자로 자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Pillmer 등은 미국의 노인학대가 부양자에 의한 경우가 높으며 부양과 관련된 노인학대의 다양한 변인이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즉, 부양요구, 상호관계의 스트레스, 부양자의 특성, 부양상황 등에 따라 노인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한동희는 부양자의 무능력, 부양자의 스트레스(부양자의 과중한 역할 수행, 배우자의 상실, 빈곤, 육체적 장애 및 알코올남용, 감정적 문제), 힘의 견제, 재산문제, 상호관계의 심리적 문제 등을 부양자 학대요인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부양자의 학대이유는 부양자가 무능력하여 노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와 이와 반대로 노인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4). 특히 무능력한 부양자인 경우 건강과 재정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양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인에게 의존하면서 학대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다. Pillemer의 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들은 노인들의 의존성이 학대하는 자녀나 부양자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므로 학대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가 노인에게 의존하면서 만성적 학대를 가하게 되면 노인은 이를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한 채 학대받는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45).

며느리는 하는 일마다 할머니가 못따땅해하고 매일 돈타경을 하며 손자녀 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바람에 1년쯤 같이 살다 분가하여 할머니를 돌보지 않고 있다(#4).

중학교를 나온 아들은 술을 심하게 마셔 몸까지 상하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일도 그냥 두고 놓고 이혼까지 하여 또 다른 여자와 동거하다 동거한 여자가 아이를 놓고 세상을 떠나고 억지로 아이를 떠맡게 하다 자신도 4년전에 세상을 떠났다 (#45).

이처럼 학대자들은 사례 11과 같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기본적 욕구마저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아들은 일자리를 구한다며 연락도 끊고 가끔 들려서 아이들만 보고 가다가 이젠 자주 찾아와 밥도 먹고 가고 때로는 돈이 있으면 달라고 하며 빚도 지고 할머니에게 연락도 없이 배를 타고 떠나 어쩔 수 없이 손자녀를 맡아 기르고 있다 (#11).

그러나 이들 노인들은 의존하고 있는 자식의 문제를 부모라는 이유로 "나 아니면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든지, 자식이 자신을 학대하는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학대상황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10).

특히 한국의 여성노인들은 젊어서는 남편의 외도나 무능력으로 고생하고 이혼하지도 못한 채 노년기에 접어들어 어려운 생활상태에서 남편의 병수발까지 떠맡고 있는 경우도 많다 (#5, #8, #9, #10, #28).

2) 가족구성원의 힘의 강약관계에 따른 분류

가족구성원의 힘의 강약관계에 의한 분류는 학대를 하는 가해자와 피해노인과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영향력의 강약, 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지 않고 배려도 하지 않는 일방적인 태도가 통용되는 상황)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강약관계 지속형, 강약관계 조기역전형, 강약관계 만기역전형 등으로 구분된다. 강약관계는 상대적이며 학대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시기에 따라 존재하기도 하고 소실되기도 하며 역전되는 경우도 있다¹⁸⁾.

(1) 강약관계 지속형

이 형태는 과보호된 자녀가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에게 과봉사를 요구한다든지 자녀가 제멋대로 노인을 지배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것으로 자녀는 강자, 노인은 약자의 상태에 놓인다. 아래 사례는 아들의 결혼 전에 과봉사한 할머니가 결혼 후 아들의 무관심과 며느리 홀대까지 받는 경우이다.

18) 金子善彦, 老人虐待, 星和書店, 1996, pp.195~220.

어려운 상황에서도 딸들은 교육시키지 않고 아들은 의대에 보내었지만 부유한 집의 딸과 결혼하였고 아들의 학비는 처가에서 대 주었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무시하다고 사사건건 할머니하는 일을 못 마땅하게 여긴다. 아들도 무관심한 상태이며 늦게 들어와 할머니에게 관심도 주지 않고 손자까지도 할머니를 무시하고 있다 (#41).

다른 사례로는 자녀 양육기에 아동을 학대해 온 부모가 노년기에 와서도 계속 성인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이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 결혼 당초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차츰 강약관계가 출현하여 배우자 학대로 이어져 이혼도 하지도 않고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들 수 있다. 이 예는 앞서 언급한 배우자 학대의 사례를 참조 바란다.

(2) 강약관계 조기역전형

노부모-성인자녀 관계는 오랜 기간의 가족생활에서 형성되어지는 것¹⁹⁾으로 과거의 사건은 또 다시 되풀이 되기도 한다. 노인학대자들은 어렸을 때 그들의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자녀일 수 있으며 이들이 연로한 노인에게 역전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²⁰⁾. 고탈치는 부모는 역시 고탈치는 자녀들에게 부양을 받고, 언어적 학대를 받아온 자녀는 다시 언어적 학대를 부모에게 하게 되며, 어려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연로한 노부모를 돌보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유형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지나친 간섭이나 냉대, 학대를 받았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부모를 괴롭히는 것으로 부모자녀 사이에 강약관계의 역전이 일어난 경우이다. 또한 시부모로부터 구박을 받아온 며느리가 노부모에게 가해자로 변신한 경우도 있다.

아들은 자신의 잘못된 신세가 할머니 탓이라며 술만 먹으면 할머니에게 신세한탄과 욕짓거리를 하며 며느리는 남편이 무능력해지자 아들 탓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핑계로 가사일도 할머니에게 모두 전달 시키는 바깥에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했다 (#12).

19) Moss, M.S., Moss, S. Z. & Moles, E. L., The Equality of Relationships Between Elderly Parents and Their Out-of-town Children, The Gerontologist, 25, 1985.

20) Kimsey, L.R., Tarbox, A.R. and Bragg, D.F., The Caretakers and the Hidden Agenda. I, The Caretakers and Categories of Abuse, Journal of American Geriatrics society, 29, 1981.

위의 사례에 의하면 아들은 자신의 무능력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고 이러한 무능력은 결국 며느리에게 오랜 영향을 미쳐 점차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약자가 되는 힘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 강약관계의 만기역전형

이 유형은 어느 시점까지는 가족관계에 별 문제가 없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나중에 가족 내에서 강약관계가 출현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자녀부부와 동거한 후 부거나 노부모가 아프고 난 뒤부터 가족간 강약관계가 나타나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잡고 다른 한 쪽은 마지 못해 이끌려가다 마침내 종속적인 관계가 되는 경우이다.

아들과 같이 동거하다 아들이 죽고나자 며느리가 재산과 집을 모조리 뺏고 할머니를 구박하고 노인의 성 곳을 잃게 만들었다 (#7).

아들이 5년전에 벼랑에서 떨어져 식물인간이 되어 자리에 눕자 2년동안 남편의 간호를 하다 그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풀면서 자녀학대, 급기야는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재산을 미끼로 잘해주는 척 하다 재산이 딸에게 나누어지자 할머니를 더 구박하고 학대하였다 (#38).

위의 사례는 남편의 무능력이나 가정의 문제가 할머니의 탓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머니 탓으로 돌려 힘의 역전관계가 되어 며느리가 할머니를 학대하는 힘의 역전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7, #12, #20, #30, #34, #38, #40, #42).

3) 노인학대를 유발하기 쉬운 가족관계에서 본 분류

노인학대를 유발하기 쉬운 가족관계는 크게 두가지 즉, 노인이 약자인 경우와 가해자가 이상 상황인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

(1) 피해자 약자형

여성노인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신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 약자가 되기 쉬우며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입장에 있게 된다. 金子善彦²¹⁾은 피해자가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서 피해자의 완고함, 병약함, 외병상태, 불결, 치매, 대소변을 못가림, 배회 등을 지적하고 있다. Douglass²²⁾도 병약한 노인의 경우 전적으로 부양자에게 의존하게 되어 학대의 취약자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들 노인들은 적절한 대안책이 없으므로 학대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이 사실을 아는 노인들은 더욱 위축감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된다. 노인들은 처음에는 반항하거나 상황을 극복하려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양자의 의도대로 약자 입장에서 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아들이 바깥을 피워 전부인라 이혼하였고 지금의 며느리는 유부남인 중 모르고 결혼을 하여 그런 이유로 시어머니까지 구박을 하고 아들이 당뇨병으로 눕게 되자 할머니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해 결국 할머니를 혼자 살게 만들었다 (#3).

위의 사례는 결국 힘의 강약관계에서 약자의 입장이 되어 학대에 희생 될 수 밖에 없었던 할머니의 경우이다.

아들이 모실 생각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딸과 함께 동거하지만 손자부양, 집안살림, 사위의 눈치 냉대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39).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의존적인 상황이 노인을 학대의 피해자로 만들고 있었다.

(2) 가해자 이상상황형

가해자의 이상상황으로 알콜중독, 질병, 약물중독, 정서적·육체적 장애, 성격적 특성, 비현실적인 기대, 결혼생활의 이상 등을 제시할 수 있다.

21) 金子善彦, 앞글, pp.195~220.

22) Douglass, R., T. Hickey and C. Noel, : "A study of maltreatment of the elderly and other vulnerable adults." Final report to the U. S. Administration on Aging and Michigan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1980.

신경성 병을 가진 70세가 넘는 아들이 노모를 모셨고, 아들의 지병 탓에 경제력이 없는 상태가 되
어버리자 부부사이도 좋지 못하고 하여 90세가 넘는 노모는 집안에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배회하여
야란 했고 급기야는 아들이 포항역에 할머니를 버려 아가페 사랑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27).

며느리가 손자녀 3명을 두고 세상을 떠나고 아들은 정신이상으로 생활능력이 없게 되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신장도 좋지 못한 할머니가 모든 생계를 맡아야 했다 (#35).

큰아들은 정신요양원에 있고 둘째 아들은 자신의 생활에 제동려 거택보호비를 빚거리로 경제적 병
간호 등의 부양을 기피하고 연락을 끊어 버리고 78세된 노모를 유기하고 있다 (#50).

위의 사례에서 보면 가해자의 질병이나 정신이상 등으로 노인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학대상황에 빠져 들어가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
회적 서비스의 개입이 노인의 입장에서 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가족적 상황의 분석에서 볼 때 가족구성원이 노인학대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힘의 견제, 의존성, 다양한 가족의 문제 등은 여성노인의
학대에 영향을 주는 가족상황의 중요 변수로 밝혀졌다.

4.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사회정책적 상황

국가가 노인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사회정책적 상황은 노인학대를 용이하
게 만드는 배경적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노인문
제가 사회문제라기보다는 개인 혹은 가족문제로 보는 입장이며 가족원의 협조에 의해 해결
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있다. 이러한 입장은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전
통적인 효의 가치에 의해 강하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정부의 정
책지향 원칙은 일반적으로 "선 가정 후 사회복지"인데 이러한 원칙은 노인문제를 진부한
가족책임주의 정신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²³⁾.

이렇게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정책이 가족에게 일임되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는데 실제로 본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여성노인의 상황은 경제문제, 의료문제, 고독문

23) 최성재, 한국의 노령화와 사회정책, 서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 주최 국제학술대회, 1995, pp.6~7.

제 등 가족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경제문제

전반적인 노인의 빈곤은 노령에 따른 질병, 산업화에 대한 부적응, 의존성의 결과에 의한 개인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겪어 왔던 생활상태, 고용구조, 계층 구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성차별적 사회구조 내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교육과 고용의 기회나 조건이 제한되어 있으며 여성이 주로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주로 하위 단순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등으로 그것도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이나 시간제 고용 등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산직의 경우는 여성노동력의 기술, 숙련도, 직급정도가 남성보다 낮아 성별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²⁴⁾. 특히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는 여성이 겪어왔던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결과로서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²⁵⁾.

또한 연금제도 등도 이러한 차별적인 고용과 저임금이 그대로 투영되어 노후에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급격하게 약화된다. 성차별적 사회구조는 또한 가정내에도 파급되어 여성의 대부분이 전업주부로서 가정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존재로서 인생을 보내는 것도 노후의 빈곤과 많은 관련이 있다. 즉,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결과로 여성노인에 대한 노후대책이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으며 평생동안을 빈곤하게 살다가 결국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식세대와의 갈등을 겪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경제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확대받는 노인의 상황에서 가장 심각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첫번째 유형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이다.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며느리, 아들, 딸, 사위 등이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는 말지 않으려 하면서 노인의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며 재산을 착취하거나 뺏은 후에 노인을 유기 또는 학대하는 경우이다.

24) 초의수, "부산지역 성별 노동시장구조와 여성노동의 특징", 부산지역 취업여성의 실태와 문제점, 부산여대 여성문제연구소, 1995.

25) Cantor, "Income in adequacy of older woman", Joseph Cillini(ed), "Older Woman in the City", 1979. 성향숙, 여성노인의 삶의 조건과 학대 및 유기에 관한 연구, 여성과 일탈, 부산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96, pp.27-46.

아들은 5년전 벼랑에서 떨어져서 식물인간이 되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 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폭행하였고 재산을 띠끼로 잘 해주는 척 하면서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행을 되풀이 했다. 그래서 할머니는 딸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사위 눈치에 먹은 것도 못 먹었다. 이 사실을 안 딸들은 재산이 모시고 있는 딸에게 돌아가는 것에 더 큰 불맛을 가졌다. 며느리는 여전히 재산 때문에 시골로 오시면 잘 해 드리겠다고 할머니를 희유하고 있다 (#20, #38)

이와 같이 재산과 관련된 경제적 착취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이나 가족이 보내는 용돈도 가로채는 경우가 있었다.

할머니의 생활비로 얼마간의 돈이 아들로부터 오지만 할머니는 그 돈을 한 번도 직접 받아 보신 적이 없다고 한다 (#20, #37)

두 번째 유형은 부양을 받아야 할 노인이 며느리나 딸이 남기고 간 손자손녀의 생계책임자가 되어 생활고에 허덕이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아들 사망 후 며느리의 가출 또는 개가로 인해서 손자녀를 맡게 된 경우와 사위 사망 후 딸이 개가 한 경우, 그리고 남편이 외도로 낳은 아이를 맡아 키우지만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유기된 경우 등이다. 이런 유형이 노인에 대한 유기와 방임 중 가장 많은 경우로 나타났다.

신할머니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손자와 함께 영세편으로 생활보조비를 받아서 생활하신다. 4년전 현재 살고 있는 손자의 아버지인 둘째 아들이 죽고 생계가 어렵게 되자 며느리가 집을 나가 버렸다. 할머니는 손자를 키우기 위해서 가사 일을 맡아서 하시게 되었다 (#18)

세 번째 유형은 정부 보조비를 받기 위해서 노인을 유기한 경우이다.

이 할머니는 아들 둘째에게서 유기된 상태다. 첫째 아들은 정신병으로 인해 할머니를 부양할 수 없는 상태이고 둘째 아들은 자신의 생활에 지쳐서 부모를 유기한 채 거택보호비를 바라며 각자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둘째 아들은 월 7만원의 월세방에 3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 아이의 교육도 힘이 들만큼 어려운 경제 사정이라서 여유가 없고 할머니의 병세로 보아 모시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따로 살고 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동회에서 돈을 주지 않을까 봐 아들 소리는 입밖에 내지 않고 낯치런 살아가고 있다 (#50)

네번째 유형은 호적상의 문제로 정부 보조금조차 못 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호적 정리를 일부러 안하는 경우 (#5)와 안해주는 경우 (#7)의 두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심할머니는 아들이 죽자 며느리가 손자손녀를 두고 가축해 버렸다. 어린 손자손녀는 자신의 손에 맡겨졌고 먹고 살기위해 생선을 이고 다니다 손녀를 잃어버렸다. 손자가 고등학교 입학 앞두고 가축해 버린 어머니를 따라 떠났다. 그러나 호적상으로 손자의 나이가 20세가 넘었고 세대주로 되어있다. 자신은 1종이 못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들이 홀아버로 되어 저승에서 싫어할 것이라며 며느리를 호적상 정리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5).

아들이 결혼하지 3년만에 사망하자 며느리는 남의 후처가 되어 가축했기 때문에 손자손녀가 자신의 손에 맡겨졌다. 손자는 세대주로 되어 있지만 가축한 며느리를 따라가 버려 아무런 도움도 없고 연락도 없으며 정부 보조금조차 받지 못하며 2종 자활보호 상태에서는 끼니를 이어 가기도 힘든 상태이다 (#7).

지금까지 호적정리 문제로 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많이 알려졌었지만 정부혜택을 바라고서 노인을 유기한 경우와 재산상의 착취 및 보조금 및 용돈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소문으로만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경제문제와 관련된 노인에 대한 학대는 재산상의 손해와 법적 규정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부양책임회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산상의 손해나 피해를 입히는 것은 이러한 행위도 노인학대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적규정과 관련되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법 적용의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법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양책임의 회피는 부양을 거부하여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경우와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부양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는 가족의 부양책임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제도적 혜택을 줌으로써 장려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세제법에도 이러한 조항이 있지만 그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부양능력이 없어서 부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인부양의 책임을 가족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가족이 돌볼 수 있도록 보조해 주어야 하며 그래도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경우는 국가가 이들을 돌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 노인부양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제도적

서비스가 먼저 주어져야 할 것이다.

2) 의료문제

노년기의 특징 중 하나인 신체적 질병은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노인의료보장 역시 국가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올바른 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노인의 경우 질병에 걸렸을 때 배우자의 간호와 수발을 받을 수 있으나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보다는 자녀의 수발을 받아야 할 때가 많아서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입장이 된다.

특히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경우에 신체적 질병은 그들의 삶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 50사례 중 21사례가 각종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는 돌보기 힘든 치매가 6명, 정신질환이 5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인 관절염 6명과 함께 장애인이 2명이었으며 그 외에 당뇨, 신경통, 노환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과중한 약값과 수술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에 의해서 유기된 경우도 있었다.

할머니는 2년전 차 사고로 허리를 못쓰는 상태이다. 그래서 활동을 못 하신다. 그 후 중풍이 들어서 식사와 용변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아들들이 모시기를 거부하여 혼자 사셨다. 병원에서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쫓겨났고 이를 본 5촌 조카가 시설로 보냈다 (#24).

또 다른 사례는 노인의 정신이상으로 가족이 모실 수 없는 경우이다.

할머니는 정신이상으로 주위 사람들을 아주 괴롭힌다. 그래서 아들·딸들은 모시기를 거부했다. 하루종일 고함을 지르기 때문에 이웃에서도 못 살겠다고 항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요양원·양로원 등에 많은 의뢰를 했지만 할머니 성격 탓에 모두 거절 당했다 (#21).

이 두 사례는 모두 노인을 모시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서 유기한 경우이다. 노인성 질환의 경우 이들을 가족에게만 맡기는 것이 옳은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첫번째 사례는 과도한 약값과 수술비 등 가족의 수발이 어려워져 유기당한 경우이고 두 번째 사례는 가족이 부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우선 노인들의 의료와 관련된 문제는 노인성 질환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비용과 과도한 수술비 및 간호비가 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생활보조금 받는 것으로는 생활조차도 어려운데 약값과 병원비는 엄두도 못내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 영세 노인들에게는 의료보호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성 질환으로 가족의 간병을 요하는 노인의 수발을 가족에게만 맡겨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가족도 과도한 비용과 피로로 인해서 노인을 유기 내지는 학대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위한 치료시설과 의료서비스 등이 늘어나야 만이 가족의 수발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족이 수발하는 경우에 보낼 수 있는 의료시설도 늘어나야 할 것이다.

3) 고독문제

노령기의 어려움 중의 하나인 고독은 노년기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학대받는 노인들이 표현하는 고독의 문제는 "대화상대자가 없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가족간의 연락이 끊겼다", "무시당한다", "대접받지 못한다", "버림받은 느낌이다" 그리고 좀더 심하게는 며느리나 딸 등 가족에 대한 원한과 분노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노령기의 고독의 문제는 가족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여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활동과 사회지지망의 형성을 통해서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이라도 젊은 사람들은 모두 바쁘고 노인만 남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함께 모여 여가를 즐기고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장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노인복지센터와 같은 곳에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문제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여성은 노인인구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사회전반의 뿌리 깊은 남녀차별의식 때문에 이들은 학대에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본 연구는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사회문화적, 가족적, 사회정책적 상황을 밝힘으로써 근본적인 여성노인문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들 여성노인들은 국가적 혼란기와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여자라는 이유로 배우지 못하고 무능력한 남편 때문에 또는 일찍 남편을 잃은 상태에서 힘

들게 자녀를 키웠으며 노년기까지 계속 악순환된 빈곤 때문에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다.

2 이들은 무능력한 남편이나 자식의 불안정한 생활을 늙어서까지 떠맡고 있었으며 부모의 조기사망이나 가출, 무능력으로 인해 남겨진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3 이들은 어머니로서 자식교육과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해 헌신을 했지만 사회구조나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당하고 있으며 질병에 걸렸을 때는 더욱 홀대를 당하고 있었다.

4 이들은 젊어서 마련하지 못한 노후대책과 공적부양체계의 미비 때문에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첫째, 빈곤한 여성노인들이 노후대책 없이 방치되었고 심한 경우는 부양을 받아야 할 여성노인에게 부양책임이 주어졌다는 점, 둘째는 지속되는 과도한 노동과 부담으로 병을 얻었다는 점, 셋째는 힘들여 키운 자식들이 부양책임을 회피함에 따라 배신감, 고독,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점, 넷째는 일상생활을 돌보아 줄 수발자도 없이 혼자 버려졌다는 점, 다섯째, 학대받는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다시 분류하면 여성노인의 상황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경제적 부양의 문제이다. 자식들이 노인을 부양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부담된다", "우리 식구 먹고 살기도 힘들다", "부양능력이 없다", "유기하는 것이 서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등으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감이 주요인이며 노인이 질병을 앓는 경우는 더욱 심각한 형태의 학대가 이루어진다. 둘째는 노인수발의 문제이다. "며느리가 일을 한다", "식사를 챙겨드리지 못한다", "가족이 돌 볼 형편이 못된다", "노인은 무조건 싫다"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한마디로 자식들이 더 이상 노인수발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노인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게된다.

무엇보다 가족이 노인을 수발하는 것을 도와주고 보충해 줄 수 있도록 소득보장정책과 의료보장정책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족이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적 보호책임을 수용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않다면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많은 여성노인들이 계속 학대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노인을 위한 가족부양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가족부양정책은 노인부양을 가족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이나 과시적으로 노부모 부양수당의 지급이나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을 뿐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가족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 등 사회서비스가 결여되어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년기가 연장됨에 따라 가족이 노부모를 부양하며 겪는 어려움을 이제는 국가가 가족정책을 통해 보조해줄 시점이 되었다.

또한 노인의 고독과 소외의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노년기의 특성 중 하나이며 부양과 수발을 잘 받지 못할 때 가중되는 현상이므로 노인단체이나 종교단체 등 사회단체와의 연결을 통한 사회적 관계형성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확대받고 있는 여성노인을 위한 보호기관이 마련되어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노인 에 대한 관심과 존경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 국민적인 의식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정책적 개입과 사회서비스 강화를 통한 국가적 개입은 불가피하다. 더 이상 노인문제를 개인이나 그 가정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적 보호책임을 수용해야 할 단계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유기된 노인, 수발할 사람이 없는 경우는 국가가 일차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또한 가족이 보호하는 경우에도 이들의 부양과 수발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제반 정책적 지원과 사회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